

| 전쟁과 생체 실험 : 의료 연구 윤리에 대하여 |

2725

허민정

목 차

1
마루타 실험

2
윤동주 시인과 마루타 실험

3
아우슈비츠 수용소 인체 실험

4
히틀러의 아기 공장

6
의료 연구 윤리

7
뉘른베르크 강령

마루타 실험

마루타 실험이란?

-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731 부대에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잔혹한 인체 실험
- 부대원들은 끌려온 사람들을 통나무라는 뜻의 '마루타'로 칭하며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실험이 끝난 사람들을 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함

마루타 실험의 잔혹함

- 수용자에게 탄저균, 천연두균 등 세균을 주입하고, 팔 다리를 절단
-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적출, 동물의 장기로 인체의 장기를 대체하는 연구 자행
- 동사, 질식사 등에 걸리는 시간 측정
- 포로를 세워 놓고 총기의 관통력, 수류탄의 살상력 등을 연구

마루타 실험



일본이 패전국이 된 직후 731부대 역시 철수 명령을 받고,
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주요 건물을 모두 폭파한 후
살아있던 희생자들을 모두 살해함

이후 열린 전범 재판에서 연구 자료를 러시아에는 넘기지 않고
미국에만 넘긴다는 조건으로 그들 대부분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음

731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시이 시로는 끝내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,
이후 미국의 포트 데트릭 생물무기 고문으로서 관련 연구에 참여하며
그가 가진 각종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함

윤동주 시인과 마루타 실험

- 당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게 된 일본은 포로들을 대상으로 바닷물이 얼마나 혈액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
- 윤동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주기적으로 접종당했고, 비슷한 실험을 받은 다른 피실험자들이 의문사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진술을 했던 기록 역시 남아 있음
- 이를 통해 윤동주가 당한 인체 실험이 바닷물을 체내에 강제 주입하는 실험이라는 설이 제기
- 실제로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로, 뇌 혈관에 감염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감염이 바닷물 속 오염 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



아우슈비츠 수용소 인체 실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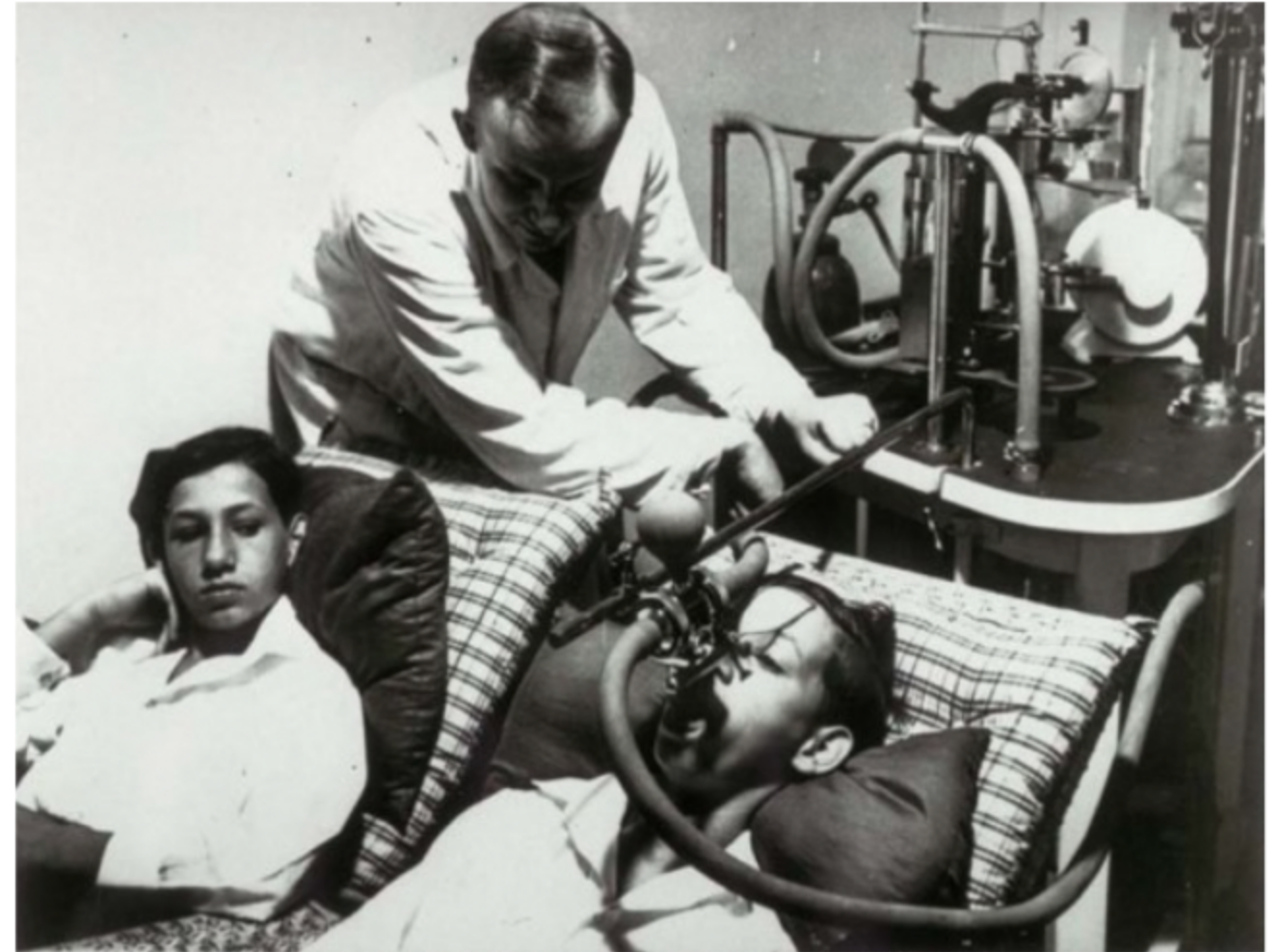
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행해진 인체 실험

-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불린 요제프 멩겔레에 의해서 인체 실험이 진행됨
- 그는 연구를 통해, 우수한 유전자(아리아인)만이 번창하고 열등한 유전자는 말살되어야 한다는 히틀러의 주장(우생학)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자 함
- 멩겔레는 1943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부임한 이후 독일의 패망 이전까지 전쟁 무기를 위한 세균, 독가스 등에 대한 실험과 우생학을 위한 쌍둥이 실험 등을 진행
- 실험 과정에서 여러 의사와 과학자들은 피실험자의 증상과 소견을 정확히 기록하며, 대상자들이 사망한 후에는 부검을 통해 임상 증상과 병리학적 소견을 비교함

아우슈비츠 수용소 인체 실험

멩겔레의 쌍둥이 실험

- 멩겔레는 200쌍의 쌍둥이를 통한 연구로 전기 충격의 효용성, 박테리아 연구 등을 진행
-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세균을 주입하고 관찰하다가 사망하면 나머지 한 명도 죽인 후 부검을 통해 정상 조직과 병리 조직을 비교



히틀러의 아기 공장

히틀러의 아기 공장, 레벤스보른

- 나치당은 그들이 우수하다고 여긴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보전한다는 명목 하에, 아리아인 특성(금발, 파란눈과 큰 키)을 가진 젊은 남녀 단원을 결혼시켜 아이를 낳기를 강요함
-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 히틀러의 친위대원과 강제로 교배 시키며 미래의 지배 인종을 창조한다는 주장을 내세움



의료 연구 윤리

생체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 문서

- 뉘른베르크 강령 :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자행했던 인체 실험 이후 전범 재판 재판부에 의해 명시하게 된 강령으로, 최초로 인체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정함
- 헬싱키 선언 : 뉘른베르크 강령 이후 1964년 세계 의사회에 의해 채택된 윤리 강령으로,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원칙을 담음
- 벨몬트 보고서 : 미국의 '의학 및 행동 연구 피실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'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본 지침을 담았으며, 1979년 발표 이후 미국의 모든 의료 윤리 정책의 기본 지침서가 됨

뉘른베르크 강령

- 다른 연구방법·수단에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,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X
-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필수적
-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·수단에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,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X
-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·정신적 고통과 침해 X
- 사망 또는 불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으나,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경우 예외
- 상해, 불구,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

등이 10개조가 있음

감사합니다!